



‘깨어있는 나 행복한 세상’



‘해외 포교’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이 길을 자정해 떠나기란 쉽지 않다.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현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재정 마련의 어려움 등은 어쩔 수 없이 ‘해외 포교’를 고행의 길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지구촌이 온통 급격한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한국불교도 홀로 ‘독야청청’할 수만은 없다. 한국불교를 외국 인들에게 알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본지는 해외 포교를 준비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9월 한 달 동안 20개국 150여 개 사찰에 일일이 연락해, 1대 1 전화 및 서면 인터뷰

를 실시했다. 10월 1~5일 종단협의회(회장 법장)가 주최한 한국문화체험행사에 참여했던 해외거주 64명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주로 ‘해외 포교를 시작한 경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 방법’ ‘현지 국가에서 정책적 도움을 끌어내는 법’ ‘부동산 구매 절차’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계량적인 수치 추출을 목표로 진행됐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묻는 1대 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가 다소 주관적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종합했기에 해외포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지 법률·제도 공부 필수

### # ‘해외 포교’ 이것이 어렵다

해외에서 포교하는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은 ‘언어 장벽’ ‘재정문제’ ‘문화적 차이’ ‘새로운 법률 및 제도 적응의 어려움’ 등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 ‘언어’는 이민 2세와 외국인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님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과 접촉하며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교한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리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 ‘재정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사찰 설립 때부터 한국의 대형사찰, 교구 본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교포들의 후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다. 다만 언젠가는 재정적 자립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는 공감하지 않던 편제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었다.

교포들의 보시금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사찰들은 한인 공동체의 경제 상황 악화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찰도 고지적인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문화적 차이’ 해외 사찰 스님들은 한국과 다른 현지 사회의 문화, 국내와는 달랐던 신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국내처럼 스님을 떠받드는 대신 재가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미국 내 한국사찰 스님들은 털어놓았다. 사찰 운영을 놓고 이사회에서 스님과 신도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스님이 없이 재가법사들끼리 운영하는 사찰도 있었다.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사찰 스님들은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부정 부패가 많은 것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스님들은 이민 신청,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믿음직한 현지 전문가를 소개받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경우 법인 등록을 신청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홀할 경우 예상외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교포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주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사찰 설립을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스님들이 교포 불자들의 신청 상담을 하면서 기인한 경제 문제, 가족 및 현지 주민과의 갈등, 취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였을 경우다.

비자와 영주권 신청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 교회들이 교포들을 상대로 종교 이민, 비자 장사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미국 정부는 2003년부터 포교를 목적으로 한 비자와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지 않고 있다.

방문 비자 상태에서 포교 활동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일단 불법이다.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은행 계좌 개설도 쉽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 비자 등을 발급받아 신분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종교인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기간 해외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서둘러야 한다.

성공적인 수행 모델을 제시, 미국인들과 교포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뉴저지 원적

### 북미 종교인비자·영주권 신청이 우선

### 유럽 공격적 포교 금기... 감성에 호소

### 남미 전문직·중산층 불교에 호의적

### 아시아 의료 등 복지 활동이 효과 커

### # 권역별 포교실태와 과제

● 북미=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에는 수백만의 한인과 1백 개에 가까운 한국 사찰들이 있다. 미국인 불자도 300만명이다.

가장 큰 과제는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 즉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대개 신분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한인 공동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의 핵심은 종교 생활이다.

사찰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여부도 그 사찰의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을 점치는 척도가 된다. 한인인 많은 LA와 뉴욕 등 대도시에 70% 이상의 사찰들이 몰려있다. 사찰들 대부분이 아직 소규모 신도회를 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도회가 구성된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만큼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주장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 때 남부럽지 않은 재정규모를 갖추었던 동부의 A 사찰, 남부의 B 사찰 등은 스님과 신도의 대립으로 주

사 성우 스님은 “올해로 미주 포교 40년을 맞지만 한국 불교는 여전히 주류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포교에서는 언어 습득도 중요하지만, 스님이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고 철저히 수행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유럽=유럽 내의 한국 불교 포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 사찰도 영국 연화사, 프랑스 길상사, 독일 보문사, 한마음선원, 정토법당 등 6개뿐이다. 따라서 현지인 포교는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며, 한국 외교관, 주재원, 유학생 등의 신행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탁날한 스님이 있는 프랑스 ‘플렘발리지’에 매년 수만명이 드나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럽 포교 전략을 짜기에 앞서 무이 스님(프랑스 길상사 주지)은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고 개성이 강한 유럽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인들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화적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포교에 활용해야 한다”고 노하우를 제시한다.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음양오행·인성전성법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술·역학·상징의  
 언어는 시주에어 고정연재중  
 원리부터대선 '역학'이 '연재중'  
 실패하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1회(화요일)  
 사주평면이 부족하신 분, 책들 보고 이해하신 분  
 사주평면이 자신 없는 분  
 \* 사주평면 및 직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 관상학 (특강 화2와 화5)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콩! 소세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오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양념만으로 최고의 맛을 낸 **순 식물성 소세지**입니다

고객들의 요청으로 작은사이즈 500g을 새로 선보입니다. 스님들께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 가격 : 500g 1BOX(10개) - 60,000원  
1kg 1BOX(10개) - 110,000원
- 주문전화 : 011-9319-7366  
061-393-7523

[계좌번호 : 500082-02-037941 우체국 오수길]

## 채 식 생활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총재 **혜산 승장**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우 130-012) TEL 02)967-7093

# 주류사회 정서 익혀야

유럽은 성공회, 가톨릭, 그리스 정교 등 종교가 다양해서인지 타종교에 대한 차별도 없으며, 국내 종교에 대한 우대도 없다.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랑스 국립대학 내에도 신학대학이 없을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그만큼 공격적인 포교는 금기사항이다. 종교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금을 받아서 사찰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재단을 설립해 사찰 공공이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내 본찰의 지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다만 방문자 비자를 쉽게 내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세금을 낸다면 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종교는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가 없다면 개종도 하지 않는다. 유럽 불자들은 '불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정신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 **남미**=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구성된 남미. 이중

한국 사찰로는 아르헨티나 고려사와 한마음 선원, 브라질 인적사, 파라과이 흥법원 등 5개 뿐이다. 고려사의 이호석 법사는 "남미 포교는 아직 언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한국 사찰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민들이다"며 "전문직 종사자나 중산층 이상 남미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포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미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부정부패가 심하며, 사찰 설립 및 활동이 힘든 편이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교민 수는 대략 1만~2만 명 수준이며, 대부분은 선진국 이민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이들 국가에 일정기간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민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는 포교가 필요하다.

● **아시아**=광명사 등 15개의 한국 사찰이 활동하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도(神道)'와 같은 토속종교의 교세가 강하다. 특히 85년 '을 진리교' 사태 이후 종교법인 허가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 운영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 사찰들은 '포교할 업무는커녕 기독교도 현상유지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찰들은 대개 천도재나 기도 등의 식을 통해 보시금을 받고 있다.

중국, 최근에는 포교적 자유가 조금씩 보장되고 있다. 중국내 한국 절은 한국(북경 만월사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한국 월정사와 중국 오대산 불교계의 교류에서처럼, 중국 정부가 기독교의 무차별적인 선교의 대안으로 불교 활동을 장려하는 추세다.

회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가톨릭 국가 필리핀,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외국인 포교가 상당히 제한된 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종교 단체를 세우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한국 절들은 한인 사업자, 교민들을 상대로 포교하고 있다.

필리핀 불국사 포교원 법관 스님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극빈자와 장애인들이 많은데, 현지 상황에 맞게 의료 및 자원봉사 위주의 포교가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 **호주, 뉴질랜드**=환희정사 등 세계의 절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성공회 신도가 다수인 국가다. 뉴질랜드는 4년 기간의 종교비자가 나오지만 환진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환희정사 주지 이정 스님은 "최근 시정부에 종교시설 등록을 마지면서 출생, 사망, 결혼 신고를 받는 법적 권한을 최근 사찰이나 문화, 관광, 종교 등을 파악하고 포교 대상(현지인/교포)을 조사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민이나 교포를 통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지역 언어 습득**  
포교지역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아직 중년 차원의 언어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사설 학원이나 경험자들이 추천하는 현지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포교 대상**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참선이나 명상 수행 프로그램 또는 다도, 사경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형도 마련해 둔다.

● **건강검진**  
국가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으므로 건강 검진

✓ **출발 1년전 부터 도착까지-준비 이렇게**

**#출발 1년 전**

- 포교지역 선정 및 정보 습득  
포교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했다면 포교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미 진출해 있는 포교당, 국제단체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종단이나 국제단체, 대사관 등을 통해 포교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다.
- 여권 및 비자 신청  
스님의 경우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발급하는 영문 승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각 종단의 총무원장 추천서가 있으면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는데 유리하지만 유럽에서는 종교인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국가라 할지라도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여권과 비자는 분실시 사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분을 복사해 두고 여권 사진도 여유 있게 인쇄해 둔다.
- 사전 답사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전 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포교당을 가며 얻을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 포교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파악하고 포교 대상(현지인/교포)을 조사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민이나 교포를 통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지역 언어 습득  
포교지역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아직 중년 차원의 언어교육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사설 학원이나 경험자들이 추천하는 현지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건강검진  
국가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으므로 건강 검진

및 치료는 동국대 한방병원 등 스님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는 곳에서 미리 해둔다. 열대 지방으로 간다면 말라리아나 황열병 예방 주사를, 중앙아시아로 간다면 A형 간염 예방 주사를 추가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검진 결과는 해당 병원에서 영문 서류로 만들어야 한다.

**#출발 3개월 전**

- 홈페이지 및 안내물 제작  
사찰 안내 자료나 팸플렛, 사찰에 비치해 둘 영문 홍보지 등은 미리 제작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홈페이지는 영어나 해당국가 언어로 제작하되 한글로도 볼 수 있게 만들면 국내 불자들이 포교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불상 및 법회용품 마련  
불상이나 법회용품 등은 현지에서 구입하기 힘들거나 비싼 경우가 많다. 특히 불상은 국내에서 모셔갈 경우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현지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다.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로 갈 경우에는 현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이삿짐 발송  
개인 물품이나 법회용품 등은 미리 꾸러놓는다. 이삿짐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항공 화물과 선박 화물이 있다. 선박화물은 지역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된다.
- 통장 및 의료보험 처리  
개인통장은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의 통장 1~2개 외에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은 말소하지 말고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 래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출발 1주일 전  
● 주요 서류 확인 및 환전  
떠나기 전 중요한 증명서류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여권과 비자,

**#도착 후 1주일**

- 도착 신고 및 구차 개설  
해당 국가에 따라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착 신고를 하고 해외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포교당 근처의 현지 은행에서 구좌를 개설한다.
- 종교부지 신청  
포교당이 마련되었다면 종교부지 신청을 한다. 미국의 경우 3인 이상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 이사장은 시민 관자여야 한다.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회교 국가에서는 시의원과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종교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신고수에 비례한 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 #도착 후 한 달  
● 거주지 통신수단 확보  
거주지가 결정되었으면 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내고 우체국에 개인 사서함을 개설해두면 편리하다.
- 비자 및 운전면허 갱신  
여행 비자를 받은 경우는 비자 기간 연장이나 종교 비자로의 전환을 신청한다. 보통 여행 비자로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정도 머무를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있지 말고 현지 운전면허로 교체한다.

여수령 기자

## 삼우스님이 말하는 해외포교

### ‘교포불교’ 벗어나 ‘개척불교’로

불교는 19세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세 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만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교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수많은 불교 관련 시설과 단체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거대한 문명사적 일대현황, 획기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해외 포교의 중요성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불교가 미국 땅에 처음 전파된 것은 1960년대이다. 64년 경보 스님, 67년 필자, 송산, 구산 스님 등이 뒤를 이어 미국 땅에 법을 전파했다. 그 결과 미국 본토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한국 절이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일어난 미국 불교의 엄

청난 발전을 생각한다면, 한국 불교는 아직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뉴욕, LA 등 한인 공동체에 의존한 '교포 불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많은 한국 절이 있지만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다. 미국 내 타메트 불교의 활약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초라하다.

이제 한국 불교는 이 '교포불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미국 주류 사회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개척불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위법강구의 자세로 목숨을 걸었던 달마 조사를 비롯한 수많은 스님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경쟁의 땅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화, 정치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불교 역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취재반**

강유신 · 여수령 · 박인숙 · 김신재 · 이은비 · 노병철 기자

---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연의 이 말씀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명랑동 110-4 101호  
☎ 021396-2736 · HP 01016220-2113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wiz@hanmail.net

##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 유주무주 선망부모 (태아령) 특별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一光 석일선 스님의 국난극복 성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정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제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정소멸과 함께 여건까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민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읍니다. 지남반 합동천도제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도량 스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건까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금년에 합동천도제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도량 스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남반 합동 천도제 때에 성인 영험담들.**

- 합동천도제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로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제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열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뒤(빨을 푸는 도구)로 빨을 한없이 퍼부어 담은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어들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기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기도 한다. (사실상 뒤) 천도제 이후로 양식장의 사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제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예 항상 아예가 아에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제 이후로는 아렸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만가지 없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물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정애가 있는 줄을 알고 몇차례 천도제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제를 지낸 그날 밤 어떤아이가 신발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꾸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흉이 가벼워 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제 이후 깃털했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제는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동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제 동참 보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상담도 가능, 불참시에는 우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시켜 드립니다

## 열린 해인사! 함께 하는 해인총림!

-해인사의 종풍(宗風)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 종합수도원(총림)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25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행도량이며, 또한 민족의 자람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法寶)총찰입니다. 조계종 출범이후에는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선종(禪宗)의 가풍을 진작함으로써 모든 수좌, 선객들의 정신적 교양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해인사가 교단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서 더욱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아 래**

**■ 의견접수기간** : 불기2548(2004)년 10월 5일~12월 말일까지

**■ 의견 내 용** : 1. 해인총림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2. 해인사 교구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총림 및 교구발전에 필요한 수행·교육·포교·문화·사회분야 및 각종불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인사에 도움되는 각종 의견

**■ 의견 접수 수** : 1. 우편접수 : 경남 함안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편집실 **055-934-3111**  
2. 팩스 : 055-934-3112  
3. Email : haein3111@hanmail.net  
4. 홈페이지 : haeinsa.or.kr

※ 보내신 의견은 바탕으로 11월부터 수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증명 : 방장 법전 대승사**

● 고 문 : 도견스님, 지관스님, 정원스님, 송월스님, 원용스님

● 지도위원 : 종성스님, 도선스님, 중천스님, 원각스님, 효광스님, 관후스님

상임공동위원장 : 월택스님  
공동위원장 : 종림스님, 여연스님, 향적스님, 해능스님, 종목스님, 도각스님, 선각스님  
실무위원장 : 능도스님

불기2548(2004)년 10월 7일

###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 위원회